마가복음 소개

아미 리(Dr. Ahmi Lee) 박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스냅 사진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다큐멘터리와 마가복음을 비교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미 리(Ahmi Lee) 교수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짧은 시간 동안 마가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설교자이자 이야기꾼인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마가복음은 흥미진진한 액션으로 가득 찬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복음서의 시작부터 마가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대담하고 충격적인 주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다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영화라기 보다는 실생활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장면이 갑자기 바뀌고, 가끔은 어색하게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장에서 마가는 장면, 장소, 이벤트가 바뀔 때 "즉시", "곧"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요한 마가(John Mark)는 완벽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며 거리감 있는 독자로 읽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매혹적인 현실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즉,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실존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결국 마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스냅샷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며 온전히 사람인 메시아의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인 마가는 단지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와

연관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오래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글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영광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마가의 글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분 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중 하나가 될 만큼 겸손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나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된 소식입니다.